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14면
이세종 열사 추모사업회 만든다

전주매일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음 2월 6일) 제346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도정 성과계약식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도정 성과계약 서명을 갖고 파이팅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선8기 5대 목표 달성 핵심전략 실행과제 다짐

전북자치도 국 · 과장급 공무원 전원, 성과계약 체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62건 등 398건 주요과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4급이상 국·과장급 공무원 112명 모두가 민선 8기 도정 발전을 위한 각각의 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 달성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도정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성과계약은 매년 국·과장급 공무원이 당해연도 추진해야 하는 개인목표를 설정하고 도지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향상을 다짐해 오고 있다.

2024년 도정 성과계약 과제는 총 397건으로 국장급 21명에 대한 113건, 과장급 91명에 대한 284건이며, 이 가운데 공약사업 83건, 정부합동평가 64건,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62건 등을 과제로 반영,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을 위해 각각의 특례에 대한 지표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62건의 신규 목표를 추가했다.

이번 계약은 민선8기 핵심전략인 △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 등 5대 목표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주요 계약 과제는 △2025년 국가예산 9조 5,000억원 확보 △5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 발굴 △위험요소 선제적 발굴·해소를 통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2단계 전북형 특례 발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힐링생태 거점기반 확대 등 에코힐링 1번지 조성 △미래성장동력산업 핵심 기업 유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전환을 위한 특례 실행방안 강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추진 △지역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주도형 교육발전 모델 발굴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실행계획 추진 등을 설정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의 해인 만큼 도정 각 분야에서 도민들께서 차별성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부터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에 체결하는 성과계약 과제 어느 한 과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의료공백 메운다… 재난관리기금 투입

전북자치도, 일선 의료현장에 총 8억원 우선 지원키로
전북대병원 등에 공보의·군의관 투입 1억4000만원
군산 등 지방의료원 3곳에 연장근무수당 1억6000만원
도내 15개 응급의료기관 자동흉부압박기 설치 5억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 8억원을 우선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차질없는 비상진료를 위해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한 일선 의료현장에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쓴다.

먼저, 인력난에 시달리는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에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11명을 4주간 파견하는데 특별활동지원 수당 등 1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산, 남원, 진안 3개 지방의료원에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연장근무 수당 1억6,000만원이 투입한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를 경감하여 응급환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호성전주병원, 군산의료원, 원광대병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진안군의료원, 고창병원, 부안혜성병원, 부안성모병원 등 15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북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자동흉부압박기를 각 1대씩 긴급 설치해 비상진료에 신속 대응태세를 갖춘다.

이 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하고 일반병원간의 역할을 분담한다.

향후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중증도에 따른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응급·중증환자 처치 등 비상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필수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공백과 관련해 도내 공중보건의사 탄력적 재배치, 예약제 운영, 인근 보건지소 순회진료, 보건진료소 활용 등 진료 여건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의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방침이다.

이정우 도 보건의료과장은 "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재정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들께서도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이용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원광대 의대 교수진 97% "사직 찬성"… 추후 일정 논의

전북대에 이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1일 '의료대란'에 대한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2명 중 99명인 97.1%가 사직세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원광대 의대 교수진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개인적인 의사로 사직서 제출 등 행동에 나설수 있다"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 비대위는 "현 의료상황에서도 교수들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휴식과 가족을 포기하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면서도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는 것은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수과와 지방 의료에 대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원광대 비대위는 추후 행동 방식과 날짜 등을 논의하고 있다./김재훈 기자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부안 설치 확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최대 관건인 전력계통연계의 시발점이 될 공동접속설비(양육점) 위치를 14일 부안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고창군과 부안군 주민들로부터 합의를 끌어낸 후 이날 개최된 민관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 부안 해역에 총 14조원을 투자해 2.46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양육(洋陸)점은 발전단지전력을 해저케이블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향후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등 전력계통연계를 위한 핵심 시설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고창, 부안 두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계통연계 양육점 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투명성을 지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고창군, 부안군, 고창·부안 주민대표,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갈등조정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민·관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양육점 위치가 부안군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더욱더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4월 중 부안군에 전력계통 구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경과대역 조사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